

## 북한의 시장화와 시민사회

저스틴 V. 헤이스팅스 Justin V. Hastings, 대니얼 워츠 Daniel Wertz, 앤드류  
여 Andrew Yeo

전미 북한 위원회

북한 여성과 사회에 관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변화하는 북한 사회: 여성, 시장화, 그리고 문화", 온라인)을 위해 작성됨.

전미 민주주의 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음.

2020 년 8 월 26 일

**초록:** 북한에서의 시장의 성장은 북한의 사회 변동 전망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북한의 시장 활동에 관한 양적·질적 데이터는 물론 이론적인 비교 접근법을 활용하여 우리는 시장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어떻게 북한 시민사회의 기반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틀을 개발한다.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불투명한 정치·경제적 풍토에 둘러싸인 북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함을 논증한다. 이어서 우리는 개별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용한 전략적 선택지가 젠더 규범을 포함한 북한의 기존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됨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 생존 전략은 계약을 집행하고 사업 분쟁을 해소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진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추구할 때 그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당국의 경계 외부에서 운동을 촉진하는 연결망을 확립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망이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출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흡수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의 소득 추출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통제를 (재)확립하는 나름의 조치를 사용했다. 따라서 우리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변동의 잠재력을 평가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초고: 허가 없이 인용하거나 유포하지 마십시오.**

## 들어가며

본 논문은 활동가들이 장마당 및 보다 일반적으로는 시장 활동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일으킨 미시 토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탐구와 이해가 모자란 부분은 시장화의 사회적·정치적 함의로 이것은 기껏해야 사변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북한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에 더 크게 주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북한에서의 시장의 성장은 북한의 사회 변동 전망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시켰다(Smith 2015; David-West 2013; Park et al. 2018). 시장을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선행 작업에 기초할 때 시장 성장에 의해 초래되는 연결망, 사회자본, 새로운 규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사회의 기반 요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대다수 탈북자와 전문가들의 진술에 의하면 신흥부자 *nouveau riche*의 출현으로부터 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연결망과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수준의 사회 변동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시장화가 멈출 수 없이 보다 큰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는 위험이 따른다. 북한 체제는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로부터 혜택을 보며 그러한 통제를 유지한다. 국영 기업이나 경제적 연결망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시장 행위자들을 흡수·강제하거나 밀어낸다. 또한 시장에 의해 가능해진 경제적 진동은 주민을 감시하거나 후원을 통해 엘리트의 충성심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자원을 국가에 제공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시장 개혁 및 자본주의의 발흥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시장이 사적이거나 준사적인 행위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나타낸다면, 또한 뇌물과 부패의 시스템이 정부 공무원들과 시장 참여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한다면 권력과 정당성의 새로운 자원은 국가 외부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김병연(2017, 192)이 주장하듯 강력한 공모의식이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 발전할 수 있으며 "그들은 교제를 맺고 서로 간의 상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시장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과 규제하는 것 사이에서 국가가 동요할 때조차 시장은 스스로 양의 피드백 루프를 생성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국가가 시장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DailyNK 2017). (불완전하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거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 체제의 영향 또한 국가 경제의 하향식 통제를

재도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잠식하고 나아가 시장 참여에 대한 개별적 유인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에서의 시장 참여가 갖는 젠더화된 성격은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장마당 판매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이는 북한 정부가 정한 규제와 더불어 북한 여성이 군대나 국영 기업에서의 의무 복무를 더 많이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시장 참여를 통해 여성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권한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그들의 정치·사회적 권한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시장 참여 속에서 여성들이 국가 행위자에 의한 경제적·성적 약탈뿐만 아니라 생계부양자와 가족의 돌봄제공자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는 빈번하다(Haggard and Noland 2012; Human Rights Watch 2018). 따라서 북한에서의 시장 참여와 시민사회 기반 요소 형성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 분석은 젠더 역할에 대한 태도와 관념을 양자 사이의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프로젝트 전반을 통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제시될 것이다. 첫째, 어떻게 우리는 (현재 풍부하게 일어나는) 북한의 시장 활동에서 (그렇지 않은) 북한 시민사회에 이를 수 있는가? 둘째, 북한의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파편화된 데이터 하에서 어떻게 우리는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알 수 있는가? 셋째, NGO는 이러한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북한에서의 시장 활동을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북한의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고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보다 제한적인 역할을 갖는다. 첫 번째 절에서 우리는 상이한 시장 구조 및 특히 여성들에 의한 시장 참여의 구조, 그리고 북한에서 시장이 작동하는 정치·경제적 맥락에 중점을 두어 북한에서의 시장 발전을 고찰한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기되는 도전을 감안해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채택하는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시민사회로 고개를 돌려 *북한 상황에* 유용한 하나의 정의를 제시하고 전통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토론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장과 시민사회를 동시에 고려하여 어떻게 이러한 시장 참여 전략이 향후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기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북한의 시장

### *김정은 체제 하의 시장*

김정은의 통치는 시장과 관련해 세 가지 지배적인 경향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김정은은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을 재집중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는 아버지의

통치로부터 넘겨받은 잠재적 반역 공직자들을 숙청하고 인력 교체의 빈도를 늘림으로써 자신들의 지역적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하위 공무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인민군이 아닌 노동당에 다시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했다(INSS 2017).

둘째, 김정은은 정치적 통제의 재집중화라는 일반적 경향에 의해 설정된 한계 내에서 *시장 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했다*. 실로 2013 년의 병진 노선과 더불어 경제 개발은 북한의 두 가지 주요 국가 목표 중 하나가 되었으며 2018 년 4 월 핵무기 보유국의 과업을 '달성한 이후에는 최우선 국가 목표로 전환되었다(KCNA 2018). 2014 년부터 정부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경영과 고용, 이윤 창출과 관련해 국영 기업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조치를 가리킨다. 이에 수반된 정책 변화 또한 대외 교역 참여 규칙을 완화했으며 북한 시민의 민간 투자를 사실상 허용했다(Ward 2017).

셋째, 영향력을 상실한 군대를 달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안보 우려 때문이든(아니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양자 모두의 이유에서든) 2016 년과 2017 년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이것은 대북 *UN 제재 및 일방 제재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인이 합법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이는 물자 부족, 그리고 민간 행위자와 개인 또는 북한 당국과 연결된 단체의 밀수 증가로 이어졌다(Ha 2019).

구체적으로 최근 김정은은 상기한 목표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 참여 자체의 중단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통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단계의 경제 정책 긴축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 계층(돈주)이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허용된 반면 국가는 (1) 수수료와 세금, 기타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소득을 추출하고, (2) 이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2020 년에는 중앙 정부의 자금 모금 수단으로 공채 구매가 기업들에게 장려되고/거나 다양한 처벌 하에서 요구되었다(Jang 2020a). 정부는 또한 여성들의 시장 활동으로부터 보다 많은 수입을 얻으려는 분명한 목적 하에서 적어도 지역 수준에서는 여성들의 납세 시행에 착수했다(Kim 2019). 또한 장마당 세대 구성원들의 태도와 충성심을 보다 잘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가 출신성분 분류에 추가되었다. 북한은 또한 "8. 3 조치"의 이용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이 조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속한 국영 기업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사영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스스로 기업가가 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2020년 1월 코로나 19 우려로 인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북한 당국은 중앙 국가 조직이나 정치적 특혜를 받은 공동 사업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채 북한을 드나드는 밀수에 대해 엄격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Ha 2020b). 이것은 (적어도 간헐적으로는) 북한 시장에서의 수입 재화 부족으로 이어졌다(Kang 2020b). 북한 당국은 또한 시장 재화에 가격 통제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Kang 2020c). 실로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기업인들은 공식적인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까지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교역 활동을 전개했다(Jang 2020b).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늘리고 '불법' 분야에서조차 교역 수입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진행해 왔다.

###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시장 및 시민사회 발전 잠재력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광범위하게 몇 가지 측면을 그 특징으로 한다. 첫째, 북한 당국은 시장과 매우 양가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1) 시간의 경과, (2) 기업인의 신원, (3) 사업의 성격과 장소에 따라 정치적 지원 또는 반감의 수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양가성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인구는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보다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국가는 경제적으로(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주민을 부양하는 동시에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양자의 측면에서), 또한 정치적으로(정치적 후원자들을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시장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을 필요로 한다

둘째, 시장화는 많은 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당국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신뢰할만한 경제적 생계부양자가 아니다. 이는 많은 북한 시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기업가가 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직접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현금을 벌어들이는 "부업" 활동이나 공무 중의 사적 금융 거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결실은 언제나 불안정한 것이었다. 사적 소유와 민영 회사(또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임의의 조직)는 법적으로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 기반 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보장받기 위해 기업이 국가 행위자들과 접촉하는 방식 또한 폭넓게 증가한다. 실로 시장을 규제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대개 (1) 현장 실상에 대한 사후적인 공식 인정이었으며 (2) 시장으로부터 추출하는 국가 수입 및 (3) 시장 행위자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규제는 종종 예측불가능하며 변덕스럽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역에 걸친 시장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정보 흐름에 대한 공식적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1) 모든 미디어의 국가 통제 및 미디어 내부의 검열, (2) 국가를 가로지르거나 평양을 드나드는 운동의 제한, (3) 전자 통신 모니터링 및 국제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에 대한 주민 대다수의 접근성 결여, (4) 당국의 경계를 벗어난 주민 조직 역량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정보원 연결망 등으로 인한 것이다(Williams 2019).

### 시장 참여자들

북한의 시장 참여자들은 당국과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분화된다. 피라미드의 최하층에는 추정컨대 장마당이나 일반 시장에서 *북한 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업가들*이 있다. 그들과 당국의 상호작용은 보위부 공무원과 여타 지역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영업 장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보다 한 층 위에는 *경화(미국 달러화, 유로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업가들*이 있다. 이것은 이들 기업가나 그들의 고객 또는 공급자가 경화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음을 함축한다. 이것은 그들(또는 그들의 조직), 그들의 고객이나 공급자가 (1) 중국과의 국경을 건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대외교역 허가증(와크), 또는 (3) 당국자와의 충분한 연줄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층에는 소위 *민관 협력*에 종사하는 사업들이 자리한다. 민영 회사는 북한에서 금지되기 때문에 공식적 지위를 추구하는 기업가들은 국가 조직과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1) 회사와 그 자산이 국가 조직 명부에 등록되고 (2) 기업가가 국가 조직 내의 직함이나 직위를 제공받고 회사 관리자로 "고용"되는 한편 (3) 국가 조직이 수수료 및 보고된 이윤의 일정 부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달리 국가 조직의 관리자들이 스스로 연줄을 활용해 동일한 영업 우대책을 갖는 사업에 착수하고 상급자에게 상납할 수도 있다.

(그들 자신과 중앙 국가 모두를 위해) 수입을 벌어들이라는 명령으로 인해 *모든 수준의 국가 조직*이 공식적 국영 회사를 설립하여 시장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역권을 비롯한 여러 자원들을 여타의 시장 해위자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사업에 착수한다. 국가 조직은 또한 해외 회사와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북한 밖에서는 현재 제재로 인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법적이다(또한 실로 북한 당국에 의해 장려된다).

마지막으로 (군과 당, 인민위원회의 상층부에 위치하는) *중앙 국가 조직*은 스스로를 위한, 또한 김정은 자신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방식의

시장 활동에 관여한다. 이들 조직은 독점적 무기 판매권을 보유하며 또한 구체적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직이기도 하다.

현재의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바닥에 있는 기업가들 – 원이나 경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 – 과 민관 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점을 둘 것이다. 시민사회 기반 요소의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러한 바닥층이다.

### 시장 참여의 젠더 및 사회 구조

북한에서의 시장 참여 전략은 젠더와 더불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고도로 분화되어 있다. 북한에서 여성들이 갖는 개인적 이동성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크다. 그것은 북한 기혼 여성들의 경우 공식 경제의 작업장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시장 판매자들과 소규모 기업가들 내에서 여성들이 득세하는 한편 북한의 많은 가구에서 여성들이 일차적 생계부양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하지만 북한 시장 경제의 상층부의 경우 여성들은 낮은 단계에 비해 상당히 적은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1980 년대를 거쳐 90 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계획 경제가 정체되고 궁극적으로 함열陷裂되었을 때 많은 국영기업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내보낸 반면 남성들은 점차 기능을 멈춘 작업장에 계속해서 출근해야만 했다. 여성들이 공식 경제에서 퇴장하게 된 상황은 소규모 상업을 여성의 일로 치부하는 전통적 태도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를 추동한 시장 교역자이자 가계 기업가 household entrepreneur 로서 여성들이 등장하는 무대를 마련했다(Park 2013; Lankov and Kim 2014; Jung and Dalton 2006).

기근 이후 수년간 북한 정부가 시장 활동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고 제도화하기 시작했을 때 장마당과 일반 시장 모두에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판매자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었다. 탈북자 조사는 대략 북한 시장 교역자의 4 분의 3 이 여성이라고 시사하는 반면 2008 년 북한인구조사는 여성이 30 만명을 상회하는 북한 "시장 판매자"의 98%를 구성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여성들은 또한 생계를 꾸리고 일부의 경우 집에 송금을 보내기 위해 중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북한의 풀뿌리 시장화가 지닌 이러한 젠더 역학은 한 학자가 "소외의 자유의 논리 the logic of the freedom of marginalisation"(Soh 2017)라고 부른 것을 반영한다. 경제적 붕괴는 체제의 바닥에 있는 이들 – 정치적으로 의심받는 집단에 속한 북한주민들은 물론 보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 – 이 가장 먼저 자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의미했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적 개선의 전망과

더불어 절박한 필요를 낳았다. 출신성분 또는 가족 배경이 나쁜 북한 주민들은 관료 집단이나 여타의 사회적 명망이 있는 직업으로부터 배제되었지만 낮은 사회계약이 소멸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장 활동으로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었다. 외국에 가족이 있는 북한 주민들 또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에 직면했지만 친척들과 국경을 가로질러 사업을 수행하거나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 중에서도 북한 여성들은 이중으로 소외되었다. 그들은 사회계층과 젠더라는 양자의 이유로 유의미한 공식 경제 참여에서 배제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북한 여성들의 시장 참여가 갖는 성격은 공식적 권력 구조로부터의 일반적 배제에 의해, 나아가 무급 일자리 참여를 피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 남성들의 시장 참여는 주로 공식 경제와 정치 제도 내에서 개인이 갖는 지위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었다. 사회·경제적 사다리의 낮은 단계에서 국영 기업에 의해 고용된 남성들은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빼돌림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현상은 기근 시기 이후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Soh 2017; Lankov et al. 2017). 남성들은 또한 북한의 국영기업 관리자들과 대외교역 회사 대표자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고위 정부 관료 및 당과 군 간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sup>1</sup> 일반적으로 그러한 공무원들은 국가 자산을 유용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후원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북한의 여성화된 비공식 경제와 남성 지배적인 공식 부문 사이에 절대적인 분할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나누는 선들은 종종 분명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여성 기업가들은 제한된 정도이긴 하지만 특히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부문 산업에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연결망을 축적할 수 있었다(Weisensee and See, 2014). 하지만 국가에 대한 봉사는 통상 장마당의 좌판에서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초기 자본과 연줄을 축적하는 데 훨씬

---

<sup>1</sup> 2008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142,756 명의 기업 관리자 중 83%, 35,476 명의 "사업 전문가" 중 76%, 그리고 42,194 명의 "고위 공무원 및 관리자" 중 85%를 대표했다. 인구조사의 직업 항목이 가진 결함으로 인해 국가 보위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조사에 따르면 99,140 명의 사람들이 "보안 서비스" 분야에서 적어도 3년간의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94%는 남성이었다. 인민군 구성원들은 인구조사의 직업 항목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 장교가 남성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여기에 더해 NGO 조선 교류는 한 정통한 북한 대담자와의 대화를 기초로 여성들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인의 5%만을 대표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https://chосon-exchange.squarespace.com/our-blog/1533>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북한 시장 경제의 감제고지에 도달한 이들은 대개 많은 연줄이 있는 남성들이었다.

### 시장 참여의 함의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 그리고 그것이 시장 참여의 유인과 전략을 추동하는 방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제기한다. 먼저 그것은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신뢰할만한 시장 집행자가 아니다. 계약을 강제하거나 일관되고 공정하게 사업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은 북한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 거래에 대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합법적 거래에서조차 국가는 본연의 분쟁 해소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국가 자체는 공식적으로 유일한 시장 참여자이다).

둘째, **모든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참여자들은 시장 재화나 시장 자체와 관련해 갑작스런 국가 정책의 전환이 있을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 그들과 그들의 거래 상대, 그리고/또는 후원 당국자가 숙청되거나 다른 힘있는 당국자와 충돌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밀수를 저자하기 위해 검문소를 통하거나 국경 순찰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국경 교역에 대해 경고 없이 국경이 폐쇄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거래 상대가 협약을 철회할지, 대금이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전달할지(시장 활동이 불법적인 경우)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 게다가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우며(아래 참조)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누군가를 속인 것에 따른 평판 비용 또한 잠재적으로 낮다.

넷째,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다**. 시장 참여자들은 (1) 재화 취득 장소와 방법(공급이 있는 장소), (2) 재화 판매 장소와 방법(수요가 있는 장소), (3)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재화를 이전하는 방법, (4) 시장 기능 방식에 대한 규칙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거래적이다**. 낮은 신뢰와 불확실성 하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공급자의 관계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본성상 거래적이다. 시장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이며 지대추구적이다.

###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

상기한 북한 시장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한 노력에서 몇 가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 전략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네 가지 주요 질문에 의해 인도된다. (1)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며 사업 분쟁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2)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가? (3) 그들은

어떻게 다른 이들과 신뢰를 형성하는가? (4) 고도로 통제되는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1. **계약의 집행 및 사업 분쟁의 해소** 국가가 분쟁을 판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들의 사업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만약 그럴 경우 국가 채널 외부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정한 국가 중재자의 부재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몇 가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집행하고 사업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개인적·집합적으로) 사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보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보복은 사기행위자와의 계약을 중단하는(또한 사기행위자와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 동료들을 독려하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방법과 무관하게 그들은 또한 영향력 있는 당국자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사기행위자를 처벌하거나 보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사기행위자와의 계약 중단을 제외하고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국가 당국자 및/또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의 연줄 형성을 수반한다(Hastings and Wang 2017, 2018).

2. **불확실성 감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재화가 징발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 참여로 인해 자신들이 체포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또한 자신들의 시장 참여 능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모종의 보증이 필요하다.

법과 규제 시행, 참여자들의 정치적 지위, 또는 향후의 정책 변동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거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을 정책 변동 또는 시장 활동으로 인한 정치적 악영향으로부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와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급행료를 통해 경비 병력(특히 밀수의 경우에는 국경 경비 병력)과 거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당국자와의 후원 관계나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적 협력 관계 형성을 수반할 수도 있다(Hastings 2016). 여기에는 여성 기업가가 당 간부와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하얀코끼리 프로젝트에 기부하거나 지역 당국자에게 (무료 차수리 등의) 서비스나 통큰 선물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했듯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업에 제한된 법적 지위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체결할 수 있다. 수수료와/나 이윤의 일정 부분에 대한 대가로 국가 당국자들은 기업을 국가 기관으로 등록하고 기업가를 관리자로서 고용하는

한편 기업가에게 실제적인 공식적 지위나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방해로부터 기업가를 다소간 보호할 수 있다.

3. **참여자들 간의 신뢰 증가.**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재화가 인도될 것이라는, 또한 불법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 자신들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밟는다. 처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양 당사자가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의 소개를 받을 수 있다. 제 3자는 시장 기회나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다. 낮은 신뢰 환경에서도 거래상대방과의 (성공적인) 거래가 반복됨으로써 점차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장기적 관계의 발전은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신뢰가 갈등 자체를 해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적으로 그것은 사업 분쟁의 가능성 또는 무엇보다도 사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북한의 많은 시장 활동이 지닌 법적 모호성 하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또한 불법 활동 공모를 통해 법적 또는 정치적 취약성을 발생시킴으로써 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양 당사자의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 및 연결망 중개인을 활용하는 것은 사업 관계를 통해 형성된 적어도 일정한 신뢰로 인한 결과이자 잠재적으로는 그것의 원인이기도 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재산 활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 '구매' 과정이 원활하도록 연줄을 동원할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통신을 원하는 북한인들을 위한) 통신 중개인과 (중국과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송금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 이체 중개인은 모두 거래에 참여하는 적어도 한 명의 시장 참여자로부터 신뢰받는 당사자로 기능하는 것을 기초로 영업을 할 수 있다.

4. **정보 접근성 개선.** 시장 참여자들은 성공적인 시장 참여를 위해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별건하고 시장 가격과 공급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중개인들은 재산 활용성과 가격, 메시지를 보내거나 금전을 이체하는 장소와 방법을 비롯해 그들이 가진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중개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모바일폰 사용 역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Aker 2010). 모바일폰의 광범위한 사용은 (국제 통신의 불가능성 및 국가 감시 요원이 도청하고 있을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물리적 소재지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모바일폰을 통해 개인들은 무엇보다 시장 기회 및 여건, 재화의 가용성과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또한 중국에 통화하기 위해 중국 모바일폰과 기지국을 사용하고 이에 의존할 수 있다. 국경의 모바일폰 중개인은 또한 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통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North Korean Economy Research Centre 2018). 해외에 갈 수 있는 북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 중에서도 선별된 소수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해외의 경우 북한 시장 참여자들은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파트너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또한 국경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당국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이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사한 시장 활동에 종사하는(또는 동일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연결망의 구조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보다 수월해진다.

### *시장 참여 전략의 사회적 함의*

앞서 시사되었듯 시장 참여 전략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 제고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에서 계약을 집행하고 사업상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보 접근성의 증가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또한 신뢰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호작용이 신뢰를 유지하고 사회자본을 육성하는지, 또한 우리가 시민사회 기반 요소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고찰한다. 여기서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연결망 등 조화로운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 조직화의 특성으로 서술된다(Putnam 1993, 167). 로버트 퍼트넘 Robert Putnam(1993, 171-172)이 주장하듯 "현대의 복잡한 환경에서 사회적 신뢰는 상호성의 규범과 시민 참여의 연결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은 밀도 있는 사회적 교환의 연결망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 역으로 일정한 기간의 반복적

교환은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이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 참여와 결사적 삶 associational life — 적어도 국가에 의해 강제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관계 유형 — 은 아직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이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연결망, 사회자본을 확장하는 데 일조한다면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시민사회 형성의 필수적인 기반 요소는 이미 마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시장 참여자 전략과 시민사회 기반 요소 간의 보다 형식적인 결합관계를 도출하기 전에 다음 절에서 우리는 북한의 시민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북한 시민사회의 발전

###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를 정확히 설명하기란 절망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자발적 결사, 비정부기구(NGO), 시민 단체, 사회운동을 지시할 수 있다. 때로 시민사회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훌륭한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 당국에 대한 독립적 "감시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완한다. 다른 경우 시민사회는 정부에 맞선 빈번한 저항과 사회운동이 증언하듯 국가와 대립한다.<sup>2</sup>

시민사회에 대한 어떠한 보편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래리 다이아몬드의 시민사회 정의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자발적이고 (대개) 자기 발생적이며 자조적인 동시에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조직화된 사회적 삶의 영역이다.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집합적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열정, 사고를 표출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사회' 일반과 구별된다"*(Diamond 1994, 5).<sup>3</sup> 따라서 우리는 여타의 행위자들(즉, 정부와 사업 행위자들)과 관계하는 하나의 행위자라기 보다는 여타의 영역(즉, 국가와 시장)과 관계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시민사회를 개념화한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지리적 영역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취해 왔다. 시민성이 국가의 일부인 엘리트

---

<sup>2</sup> 폴리 Foley 와 에드워드 Edwards(1996, 39)는 시민사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시민사회 I"과 "시민사회 II"로 구분하기조차 한다. 시민사회 I 이 결사의 관습과 수평적 연결망을 통해 시민성의 유형들이 육성되는 장소인데 반해 시민사회 II 는 폭정에 대한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행동의 영역"을 강조한다.

<sup>3</sup> 우리는 다이아몬드 Diamond 의 정의에서 " *법적 질서 또는 일단의 규칙에 의해 구속된다*" 는 구절을 제거했다. 그것은 시민사회가 종종 법적 관할 밖에서, 특히 비민주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구별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계몽주의 시기의 시민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에 맞서는 일종의 완충지대로 역할했다(Edwards 2009). 알렉시 드 토크빌과 같은 일부 정치 이론가들이 시민사회를 거버넌스의 핵심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반면 칼 마르크스는 시민사회를 궁극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따라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Edwards 2009). 일부 학자들은 시민사회를 민족 국가와 자본주의의 산물로, 즉 "사회적 삶과 시장 경제 사이의 갈등을 매개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Edwards 2009, 3). 산업화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 유대를 전복함에 따라 위압적인 국가와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시민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적 삶을 반영하지만 특정한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반영되는 "보편적 표현"으로 이해한다.

#### *북한의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민사회의 역사적·문화적으로 유연한 성격을 감안할 때 남반구의 시민사회는 북반구와 비교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구 또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맥락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또는 권위주의적 맥락에서의 시민사회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모든 차이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또한 그것이 어떻게 빈곤하고 비자유주의적이며 비서구적인 북한에서 출현하고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전적인 것은 체제의 억압적 성격 및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화된 삶"의 부재를 감안할 때 북한과 같이 문명화의 수준이 훨씬 더 낮은 국가에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연구될 수 있는냐는 것이다(Lankov et. al. 2012). 여성 단체와 노동조합, 청년 조직 등의 사회 집단은 실로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집합적 조직은 당과/이나 국가의 연장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통적인(즉, 서구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다른 비서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고도의 권위주의적 맥락에서 시민사회를 사고하는 데 모종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은 시민사회의 "좋은" 요소(가령,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정책을 개선하는 지역 NGO)는 촉진하되 잠재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나쁜" 요소(가령,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는 지역 단체)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허용했다(Teets 2014). 중국이 향후의 북한 시민사회가 따라야 할 모범적 모델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범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북한

시민사회의 전망을 고찰할 때 연구자들이 서구적 틀에서 벗어나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독려한다.

### *공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공적 영역인 동시에 행위자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하더라도 북한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현 단계에서는 시민사회를 공적 영역으로 탐구하는 것이 보다 빈번하게 민주적 사회와 연결되는 조직인 자발적 결사나 독립적 시민 단체의 부재를 감안할 때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사회를 공적 영역 및 자발적 연결망과 결사적 삶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취급할 때 몇 가지 개념적 중첩이 있음을 인식한다.

공적 영역의 개념을 따를 때 시민사회는 국가 통제 밖의 사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능력에 따라 확장되거나 수축될 수 있다. 하버마스(1991, 27)가 주장하듯 공적 영역은 "무엇보다 사적 개인들의 영역이 하나의 공중 a public 으로 결합될 때 인식될 수 있다". 그러한 연결망이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은 비공식적 시장 연결망에 대한 국가의 용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억압 능력에도 달려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함과 활력은 시민단체의 수나 대중 동원의 규모 및 효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각과 담화가 교환되고 토론되는 *논쟁의 장*으로서 측정된다(Edwards 2009, 8).

북한 체제가 반혁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상을 근절하려는 노력 속에서 개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하더라도 체제가 북한인들의 생각과 양심을 전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Baek 2017). 장마당이 부분적으로만 규제되는(또는 암시장의 경우처럼 전혀 규제되지 않는) 한에서 시장은 대면적으로든 아니면 모바일폰을 통해서든 개별적 상호작용을 위한 모종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시장 관련 정보(가령, 재화의 가격, 공급 및 물류 등)를 넘어 날씨, 최근의 사건, 지역적 가십과 같은 일상사로부터 부패한 지역 당국자를 비판하거나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숙고하는 것과 같은 보다 전복적인 담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또한 출현할 수 있다.

전복적 사고와 담화가 공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체제의 결함을 언급할 때 농담과 유머,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Joo 2014; Park 2018). 비언어적 신호 또한 정부 권위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학자들은 해외 패션 감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여성들의 패션을 체제가 선전하는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공적 진술로 인식한다. 보다 다양한 색채와 짧은 치마길이로 변화한 패션은 애초에 국가에 의해 장려된 것이 아니라 해외의 패션

흐름을 관찰하고 채택하여 이를 북한으로 들여온 여성들에 의해 촉진된 것이며 이는 체제의 엄격한 복장 규정이 지닌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 *시장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경로*

시민사회에 대한 초기 연구는 시장과 시민사회, 특히 공적 영역으로 이해되는 바로서의 시민사회가 맺는 긴밀한 관계를 입증해 왔다. 예컨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시민사회를 "민법에 의해 규제되며 가족과 국가 사이에 끼어드는" 시장 관계의 영역으로 사고했다.<sup>4</sup> 공적 영역에 대한 하버마스의 연구 또한 시장에서 출발하였다. 교역과 상업의 증가는 다양한 마을에서의 재화와 가격에 관한 정보 수요를 낳았다. 상업적 교역로를 따라 지역의 선술집, 살롱과 카페가 생겨나고 이는 부르주아 공중의 발전을 육성하는 데 일조한 사회적 교환의 공간을 제공했다. 알라가파 Alagappa(2004, 27)가 설명하듯 "18 세기 유럽에서 상업국가가 발전하면서 본질적으로 시장에 의해 조직된 생산과 경쟁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시민사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가족 및 국가와 분리된 별도의 공적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8 세기에서 20 세기로 옮겨가면서 민주화의 제 3 의 물결 및 구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시민사회의 재각성은 또한 "개인, 사회, 국가, 시장이 맺는 본연의 관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대화의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의 북한 시장 활동과의 역사적 비교에는 1980 년대 초반에서 1990 년대 중반에 이르는 중국 경제 및 1980 년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출현한 제 2 경제가 포함된다(Kim 2017; Howard 2003). 중국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을 때에도 강력한 시민사회는 발전하지 못했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보다 주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갈등의 시기에 시장은 때로 여전히 작동하는 유일한 사회의 부분이었다(Andreas 2008).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교는 선행하는 '제 2 경제' 사례와의 유사점과 차이, 그리고 정치적 이행기와 그 이후에 시민사회가 실제로 발전한 방식을 바탕으로 시장 활동이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라는 결과로 나아가는 경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 *시장 참여 전략과 시민사회에 대한 최초 아이디어*

시장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과거 사례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북한에서의 시장 확대(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을 집행하고 분쟁을 해소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신뢰를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얻기 위해 고안된 시장 대처 메커니즘의 확대)가

---

<sup>4</sup> 하지만 헤겔은 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때로 시민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가 시민사회를 인도하고 시민사회에 질서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See Alagappa 2004, 27.



궁극적으로 시민사회 부문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 제재로 인해 시민사회의 발전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탈북자 조사와 인터뷰에서 나온 증거들은 시장 참여자 전략이 (부지불식간에) 시민사회의 핵심 기반 요소들을 발생시켰음을 시사한다. 분명히 하자면 이는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발생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시장으로부터 도출되는 대다수의 연결망은 여전히 사적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에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적 신뢰에 기반한 시장 연결망은 어쩌면 본래적으로 그 규모를 스스로 제한할 것이다(Haggard, Lee, and Noland 2012). 하지만 체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아래에서 우리는 시장 참여로부터 나타난 시민사회의 기반 요소 몇 가지를 개괄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신뢰 (또는 사회자본):**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신뢰*, 관계적이며 적어도 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신뢰이다. 교환 및 상호성에 기반한 신뢰는 처음에는 이타심이 아니라 도구적 합리성을 그 동기로 삼으며 상호 의존으로부터 출현한다(Cook et al. 2005, 5). 신뢰는 과거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누적되는 정보와 지식에 의해 추가적인 특징이 부여된다.

사회자본은 "사회 또는 사회의 일정 부분에서 신뢰가 만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역량"(Fukuyama 1995, 664)을 가리킨다. 경비 병력과 거래 관계나 중개인에 대한 의존이 사회자본을 발생시킨다면 시장 전략은 궁극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비공식적 결사체(즉, 상인 협회나 지역 농민 조합)를 육성할 수 있다.

2. **상호성:** 시장 거래는 종종 *상호적 관계*에 의존한다.<sup>5</sup>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역으로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재화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구매자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아 신용 구매를 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믿는다. 거래가 완료되고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뢰하고 그

---

<sup>5</sup> 경제학자들은 반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무임승차자 문제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다(Greif 1993).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에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예상할 수 있을 때 협력은 보다 수월해진다(Axelrod 1984; Abreu 1988). 사회적 유대는 또한 시장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법적 구조의 상실을 대체할 수도 있다(Glaeser et al. 2002; Arrow 1972).

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 상호작용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또한 평판에 의해 형성된다. 콜먼 Coleman(1990,109)이 주장하듯 "신뢰성에 대한 평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그것은 그러한 평판이 신뢰받는 이가 향후의 사업을 위해, 다시 말해 향후의 신뢰를 위해 의존하는 모든 이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위기의 시기 또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는 시기(가령, 기근)에 개인들이 이방인들을 신뢰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Yeo and Green 2016, 7-8).

3. **신뢰 연결망**: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시장의 출현 및 참여자들이 불확실성, 정보의 결여, 신뢰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킨 전략들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또한 각 집단 사이에 *비공식적 신뢰 연결망*(또는 수평적 연결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기회주의적이며 순전히 자기 이해관계와 이익을 동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자 및 판매자와의 다면적 거래는 가격, 운송로, 판매자 및 구매자, 그들의 제품에 대한 평판을 비롯해 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에 관한 지식을 산출한다. 이러한 지식이 시장 교환을 통해 충분한 정도의 사회적 신뢰를 발전시킨 참여자들사이에서 공유되는 한에서 그것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한다.

정보 접근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은 또한 수평적 연결망의 폭을 결정할 수 있다. 국경 통화는 각각 중국의 시장 행위자들과의 수평적 신뢰 연결망 및 당국자와의 수직적 신뢰 연결망을 촉진하고 확장할 수 있다. 정보가 개인들 내부에서, 또한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지의 여부 및 그 방식은 시민사회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시민사회와 닮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하기에 보다 나은 여건에 있다. 그것은 그들의 상호작용이 일차적으로 집합적 이해관계보다 이윤과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될 때조차 그러하다.

시장 활동으로부터 출현하는 신뢰 연결망을 시민사회단체와 등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연결망, 규범, 신뢰"를 통해 참여자들이 "함께 행동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된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적 신뢰 연결망 역시 사회자본을 발생시킨다(Greif 1993).

4. **공유 규범:** 이러한 공유 공간 내에서 시장 참여 전략은 **공유 규범**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컨대 시장 참여자들은 평판에 손상을 가하고 구매(또는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사기행위자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어떤 행위가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없)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 전략은 또한 보다 광범위한 시장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시장 규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컨대 국가 당국자에게 뇌물을 제공할 때에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국경 수비대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암묵적인 한도(또는 시장 효율)가 존재할 수 있다.

시장 참여 전략을 시민사회 기반 요소로 번역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시장 정보(즉, 가격, 재화의 품질 등) 교환과 사업 거래가 시장을 넘어서는 관계로 연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다시 말해 시장 참여 전략은 시장 영역에 제한되는가, 아니면 시민사회 영역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상호작용이 사업 거래로 엄밀하게 제한되는 경우 시장 전략은 시장 영역 내로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재화와 가격에 관한 정보가 여타의 비시장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시장 활동은 제한된 시민사회의 초기 형태를 간접적으로 형성하고 그것의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의 시장이 시민사회와 등치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존재는 공적 영역 및/또는 결사적 삶에 본질적으로 것으로 파악되는 기반 요소를 생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물론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자본, 상호적 관계, 신뢰 연결망, 공유 규범이 시민사회로 번역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타의 많은 외부 요인들(가령, 정치적 개방성의 정도, 보다 일반화된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국가 개입의 수준 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